

# 단꿈아이 독후활동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10 장화홍련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10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umi Corp.



# <장화홍련전>을 한번에 정리해 보요!

1

## 어머니 잃은 자매



평안도 철산에서 배 좌수의 딸로 태어난 장화와 홍련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어요.

4

## 장화의 죽음



장화

혼자 남을 홍련이 걱정이구나, 흑흑.

장화는 허씨의 계략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결국 연못에 빠져 죽게 돼요.

2

## 새어머니 허씨



배 좌수

좋은 어미가 되어 주시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배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고 아들 셋을 낳아요.

3

## 허씨의 구박



허씨

고기반찬은 먹을 생각도 말아!

허씨는 장화와 홍련을 미워하고 구박하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5

### 홍련의 죽음



홍련

언니를 따라갈게.

죽은 장화를 그리워하던 홍련은 파랑새를 따라가 장화가 죽은 연못에 몸을 던져요.

6

### 연달은 사또의 죽음



한편, 고을에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마다 하룻밤 만에 죽는 일이 벌어져요.

8

### 떠나는 장화 홍련



사또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원한을 풀 장화와 홍련은 하늘로 떠나요.

7

### 원한을 풀어 주오



사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마침내 새로운 사또 정동우가 오고, 홍련의 귀신이 나타나 원한을 풀어 달라고 부탁해요.



# 교수님! <장화홍련전>은 어떤 책이에요?

◆ 거짓은 밝혀지고 악행은 벌받는다든 이야기, <장화홍련전> ◆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조선 시대

**지은 시기** 조선 시대

**갈래** 계모형 가정 소설

**주제** 악행은 반드시 밝혀지고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장화홍련전>은 예쁘고 착한 자매가 못생기고 나쁜 계모로부터 구박받다가 억울하게 죽은 뒤, 혼령으로 나타나 누명을 벗고 원한을 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줄거리를 가진 소설을 ‘계모형 가정 소설’이라고 해요. 또한 <장화홍련전>의 주제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행동하며 마침내 착한 사람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든 ‘권선징악’이기도 하지요. 억울하게 죽은 원한으로 인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장화와 홍련은 결국 한을 풀게 되고, 나쁜 짓을 한 계모 허씨와 장쇠는 죽게 되는 결말을 보여 준답니다.

계모가 들어와 주인공을 구박하는 내용의 ‘계모형 가정 소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익숙하게 읽혀 왔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나 <콩쥐팍쥐>가 대표적이지요.



▲ 1969년에 발행된 콩쥐팍쥐 우표

## ❁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 <장화홍련전>

<장화홍련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해요. 조선 시대 효종 때 평안도 철산의 사또였던 전동흠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에 나오는 사또의 실제 인물이지요. 전동흠은 병자호란 때 활약한 조선의 무관으로, 실제로 철산 사또로 있을 때 장화, 홍련이 겪은 것처럼 계모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누명을 벗기고 원한을 풀어 주었다고 해요. 이런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긴 전동흠의 자손이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에게 부탁해 할아버지의 활약을 기록하게 하면서 소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장화, 홍련은 사또도 죽일 만한 힘이 있는데 왜 자신들을 죽인 계모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장화홍련전>을 읽는 어린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직접 복수했다면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데 그쳤겠지. 그러나 사또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

<장화홍련전>은 표면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고전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권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어서 법을 통한 심판이 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의 산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나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어요. 호랑이가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이 흔해, 나라에서 ‘착호갑사’라는 호랑이 사냥 부대를 따로 만들 정도였죠. 이처럼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인 동시에, 우리 옛날이야기나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마구잡이로 사냥당하고 살 곳마저 잃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야생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요.

### ❁ 조선 시대에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다섯 가지 벌이 있었어요. 가벼운 죄를 지으면 엉덩이를 때로 맞는 ‘태형’이나 ‘장형’을 받았고, 오늘날의 감옥처럼 가두어 놓고 힘든 일을 시키는 ‘도형’이라는 벌도 있었지요. ‘귀양’으로 잘 알려진 ‘유형’은 먼 곳으로 쫓겨나는 벌이었고, 가장 무거운 벌은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었답니다. <장화홍련전>의 허씨와 장쇠도 결국 벌을 받아 엄한 죄값을 치르게 되고요.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잘못에 따라 벌을 나누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답니다.



▲ 형벌을 받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형정도>

❁ **장화와 흥련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선 시대에는 누가 도와주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오늘날처럼 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너무 어렵고 서류 쓰는 법도 몰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았지요. 이럴 때 이들에게 힘을 보태어 준 사람이 바로 ‘외지부’예요. 외지부는 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대신해 서류를 써 주고 재판을 도와주던, 오늘날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었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외지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 **〈장화흥련전〉의 배경이 된 평안도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혹시 ‘조선 팔도’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 땅을 여덟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함께 지금은 북한 땅인 함경도,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평안도는 우리나라 지도의 왼쪽 맨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압록강’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답니다.



▲ 조선 팔도



##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보요!

**Q** 허씨가 장화와 흥련을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씨는 배 좌수의 새 부인인 동시에 장화와 흥련의 새어머니로 배씨 집안에 시집왔어요. 그렇지만 장화와 흥련은 틈만 나면 죽은 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하지요. 배 좌수 또한 장화와 흥련을 불쌍히 여겨 새 부인 허씨를 감싸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허씨는 배씨 가문에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어요.



**Q** 장화는 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쓰고 죽음을 택했을까요?

당시는 가장인 아버지의 말이 곧 법과 같이 여겨졌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또한 조선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가치 가운데 하나가 '효'였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했지요. 부모님이 연못에 빠뜨리라고 했다는 장식의 말을 들은 장화는 자식 된 도리로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 없었을 거예요.



- ❁ 많은 이야기에서 새어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 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 내고 행복해지는 과정에 빠져들곤 해. 이 과정에서 새어머니를 악역으로 설정하면 주인공의 착한 마음과 용기가 더 돋보이게 되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새어머니도 많아. 이야기 속 새어머니의 모습만 보고 ‘새어머니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을 가지면, 현실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

.....

.....

# 쏙쏙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계략**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말해요. P.32

**먹칠하다** 명예, 체면 따위를 더럽히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P.32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암전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탄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속담이에요. P.33

**얇던 이가 빠진 것 같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후련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39

**양갓음하다** 남이 자기에게 해를 준 대로, 자기도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P.48

**노심초사하다**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이에요. P.51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말해요. P.62

**홍홍하다** 분위기가 술렁술렁하여 매우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P.64

**명명백백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P.83

**양자** 아들이 없는 집에서 남의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남자아이를 말해요. P.105

**볼수록 가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거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P.122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1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해 보세요.

홍련: 부디 사또께서 저와 언니에게 맺힌  
(원한 / 제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2 단어에 알맞은 뜻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① 흥흥하다 ● | ●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말     |
| ② 노심초사 ● | ● ㉡ 분위기가 술렁술렁하여 매우 어수선하다는 말 |

3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

아들: 엄마, 사실 엄마가 아끼시는 컵을 제가 떨어뜨려서  
이가 나갔어요.

엄마: 뭐, 왜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아들: 귀중을 들을까 봐 겁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같이 속이 후련해요.

- ① 앓던 이가 빠진 것
- ②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 ③ 마파람에 게 눈 감춘 것

4 <장화홍련전>의 대사로 맞으면 ○, 틀리면 ×해 보세요.

- ① 배 좌수: 여보, 내가 절대로 새장가 가지 않고 우리 딸 들을 잘 키워 보리다. (      )
- ② 장쇠: 장화 누이, 이게 다 우리 어머니의 계략이니 어서 몸을 피하시오. (      )
- ③ 사또: 장화와 홍련은 한을 풀었으니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      )

5 <장화홍련전>의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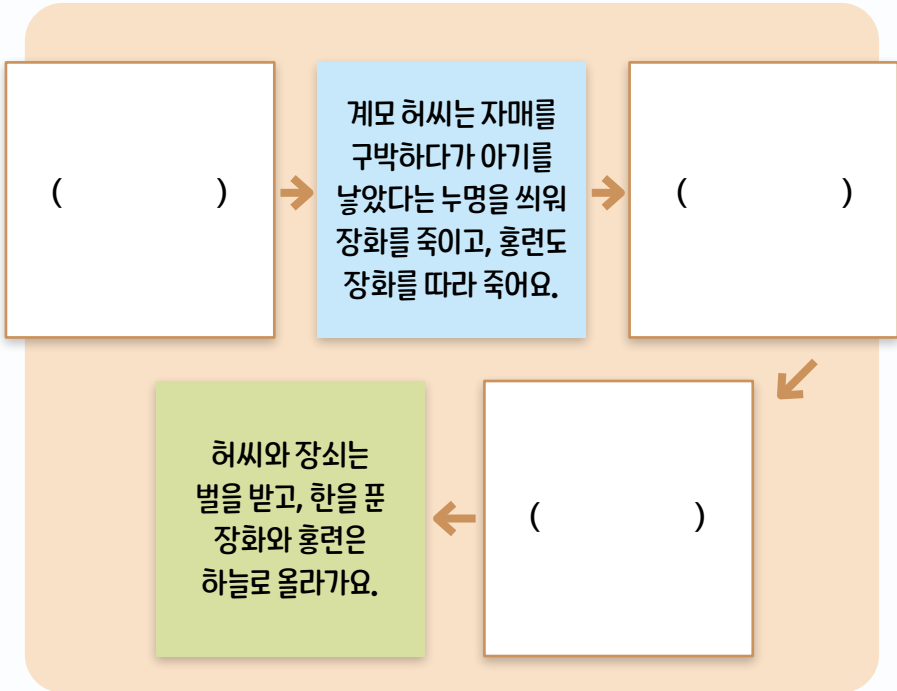
- ① 배 좌수는 대를 잇기 위해 허씨와 재혼했어요.
- ② 허씨는 장쇠를 비롯하여 아들 셋을 낳았어요.
- ③ 허씨는 장화를 좋은 집에 시집보내기 위해 애썼어요.
- ④ 철산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귀신을 보고 놀라 죽고 말았어요.

6 글을 읽고 뜻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뜻의 말.

하다.

7 <장화홍련전>을 자세히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번호를 써 보세요.



①

억울하게 죽은 홍련이 귀신이 되어 밤마다 사또의 방에 나타나요.

②

장화와 홍련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자, 아버지 배 좌수는 대를 잇기 위해 계모 허씨를 들였어요.

③

새로 부임한 사또가 홍련의 사연을 듣고 배 좌수와 허씨를 불러 진실을 밝혀요.

#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 미호의 독서 일기

1. 누명을 쓰고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울기만 하는 장화가 답답했다.
2. 흥련은 언니 뉘까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왜 파랑새를 따라가서 연못에 빠져 죽는 거야!
3. 마침내 사또가 진실을 밝히고 허씨와 장쇠에게 벌을 주는 장면에서는 속이 후련했다. 배 좌수가 새로 결혼해 낳은 딸들이 장화와 흥련의 환생은 아닐까?



## 설쌤의 독서 일기

1. 권선징악의 교훈과 원한을 푸는 이야기를 동시에 전해 주는 <장화흥련전> 낭독은 조선에서의 피날레로 완벽한 선택이었다.
2. 배 좌수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도 양반의 체면과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_\_\_\_\_의 독서 일기



❁ 재미있었던 장면,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정답 및 해설

1 **정답** 원한

**해설** '원한'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말해요.

2 **정답** ① - ㉠, ② - ㉡

3 **정답** ①

**해설** '않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후련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4 **정답** ① - X, ② - X, ③ - O

**해설** ① 배 좌수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해 허씨와 재혼했어요. ② 장쇠는 장화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 언못에 빠져 죽게 했어요.

5 **정답** ③

**해설** 허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장화가 아기를 낳았다고 누명을 씌워 죽였어요.

6 **정답** 명명백백

**해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뜻의 말은 '명명백백하다'예요.

7 **정답** ②, ①, ③

**해설** 장화와 흥련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자, 아버지 배 좌수가 대를 잇기 위해 계모 허씨를 들였어요. 그러나 계모 허씨는 자매를 구박하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누명을 씌워 장화를 죽이고, 흥련도 장화를 따라 죽어요. 이에 억울하게 죽은 흥련이 귀신이 되어 밤마다 사또의 방에 나타나요. 새로 부임한 사또가 흥련의 사연을 듣고 배 좌수와 허씨를 불러 진실을 밝혀요. 결국 허씨와 장쇠는 벌을 받고, 한을 풀 장화와 흥련은 하늘로 올라가요.